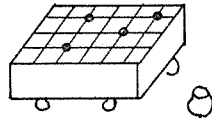


# 제 1 회 科總會長旗쟁탈 바둑大会 団体戰 特選譜



- 김 장 한 <統計学会>
- 이 승 구 <科学技術会>

<제한시간 각 1시간 · 덤 5 戶半>

## 제 1 보 (1~50)

<양팀主長간의 단체전 첫판>

現代經濟日報 · 일요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번 제 1 회 대회에는 東洋나이론 (社長 裴基殷) 과 三千里産業 (會長 李壯均) 의 협찬으로 會長旗외에도 푸짐한 副賞이 마련되어 있었다.

4 월 12 일, 閔寬植會長은 개회사를 통해 「나는 운동은 거의 안해 본것이 없지만 바둑은 잘못둔다. 그러나 두뇌 스포츠인 바둑이 科学技術人 여러분에게는 아주 적합한 게임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科總이 존재 하는한 이 대회를 끝까지 계속할 생각」 이라고 참가팀들을 격려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판은 우승을 다투는 양팀의 주장전이자 단체전 첫판이다.

黑 1, 3, 5 는 오래전부터 많이 애용되어온 포석으로 견실한 것이 長点, 그러나 黑 7 은 덤이 있는 요즘 바둑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것은 5 戶半이라는 큰덤의 부담을 안고있는 黑의 입장에서 볼 때 때문이다.

白 10 은 쟁탈의 要所. 하지만 黑 11 때 白 12 로 다가선 것은 이상했다. 따라서 黑도 13 으로는 가에 뛰어 白의 응수를 살필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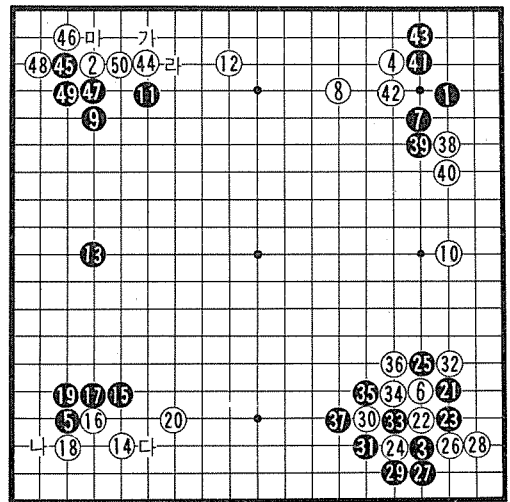
白 20 은 무리. 나에 뺏는것이 정수로 黑이 당장 다에 건너 붙여와도 白의 처리가 만만치 않다.

黑, 패기 부족.

黑 41, 43 은 시급한 조치였다. 이수를 게을리

하여 白이 귀에 日字로 달려오면 黑이 당장 곧바로 물리기 때문이다.

黑 45 는 당연. 지금와서 라에 짓치는 것은 黑만 괴로워 진다. 그런데 白 48 로 반발 했을때 黑 49 로 이은것이 패기 부족이었다. 여기서는 50 으로 되돌고 白이 49 로 때릴때 마로 단수하고 라에 몰아바꿔치는것이 최선이었다.



## 제 2 보 (51~110)

<패기부족의 黑, 맹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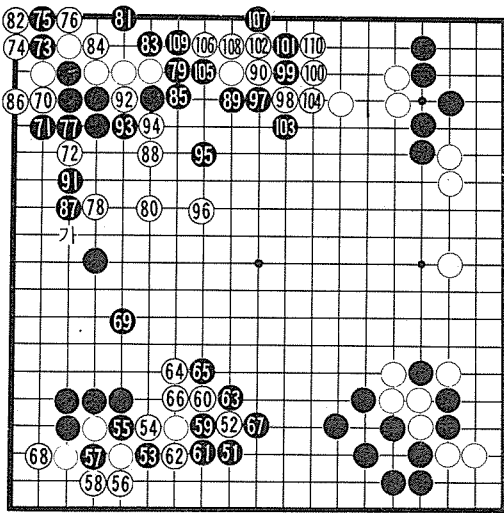
黑 51 도 약한수. 黑이 이렇게 평범하게 두어서는 白의 実利를 따라가기가 어려우므로 53 에 건너붙여 강력히 싸우고 싶다.

黒이 초반에서 몇번의 의문수를 두고는 형세가 白에게 크게 기울어져 있다.

이대로 무사히 끝난다면 黒의 패배는 明若觀火하다. 따라서 黒의 분발이 요청된다.

黒73, 75를 두고 77에 이은것은 좋은 수순. 이 교환으로 당장 무슨 수단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白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의미가 있다.

白80은 예정된 삭감 수단이었지만 黒79때 손을 빼고 80으로 뛰어 중앙으로 진출을 서두른 것은 약했다. 여기서는 85로 끊고 상변을 차지해둘곳으로 黒에게도 약점이 많아 좌변 白은 쉽게 잡힐말이 아니며 좌변만 수습된다면 黒은 더이상 버틸수가 없었다.



黒81, 83이 白의 허를 찌르는 맥점이었다. 白은 적당한 반격 수단이 없어 이하 86까지 귀에서 살고 말았는데 상변 白의 세력이 이렇게 쉽게 깨져서는 黒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黒87은 과했다. 그런데 이수가 전화위복이 되었으니……

白88이 엉뚱한 수. 白은 형세가 유리 하다고 보고 모험을 피하여 우선 중앙부터 안정하자는 뜻 같은데 黒이 손을 빼고 91로 넘어 버리니 실

리의 손실이 너무 크다. 白88로는 가 젓혀 좌변에서 살아야 했으며 그랬다면 白이 절대 우세한 형세였다.

어쨌던 본보에서는 黒이 맹활약을 보여 형세를 크게 만회하고 있다.

제 3 보 (111~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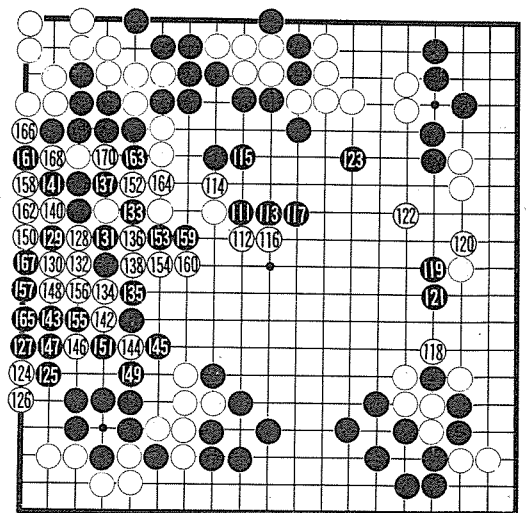
〈黒, 중대한 수순착오〉

전보에서 白이 느긋하게 두고 있는 동안 黒은 맹추격을 전개하여 큰성과를 견우었다. 그러나 아직도 실리로는 黒이 약간 부족한 형세이므로 중앙 白을 적절히 공격하여 어느정도 벌어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黒11이 의문. 白을 '공격한다면 이렇게 白兵戰을 벌일것이 아니라 한발늦춰 13으로 씌워가는데 강력했다.

白12, 14가 기분좋은수. 결국 이하 黒17까지 되고보니 허약하던 중앙 白이 자연스럽게 안정돼서 어느쪽이 공격하는 것인지 아리송하게 되고 말았다.

白은 중앙에 위험이 없어지자 18로 때려내서 후환을 없앴다. 이것으로 바둑은 끝났다는 의사 표시라고 하겠는데 그렇다고 黒이 19, 21로 즉각 파괴를 서두른 것은 너무 성급했다. 지금은 좌하귀를 막아 실리를 차지하면서 중앙 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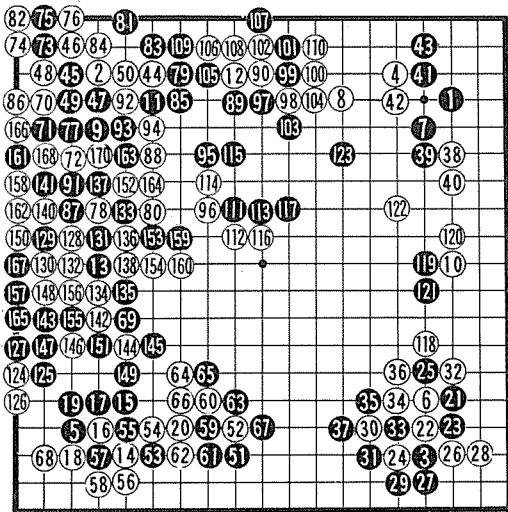
공격을 엿보는 것이 최선이였다.

白24, 26은 白의 권리,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28, 30으로 방향을 바꾼것은 무리였다. 만약 수가 되지 않는다면 보태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白52도 무리. 중앙은 터지더라도 57로 각성하는 것이 정수였다.

黑53은 60으로 들여다 볼 곳이였으며 黑61이 敗着. 먼저 65에 이어 白67을 강요한후 막아야 했으며 그랬다면 黑이 먼저 때리는 패가 되어 白이 곤란했다.

白70까지 黑의 수순착오로 黑8 점이 아무런 댓가없이 잡혀서는 黑이 만회할 곳은 없다. 170 수이하 줄임. 39...이음, 69...29의곳.

총보 (1 ~ 170)



〈統計学会 先勝〉

변화무쌍했던 첫판대결로 처음부터 끝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열전이 계속된 바둑이였다.

그러나 바둑내용을 보면 두主將 모두가 평소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것 같다. 아마도 꼭이겨야 한다는 강박감과 팀의 주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합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킨 때문이 아닌가 싶다.

초반의 포석은 黑白모두 이상했다. 우변의 요소를 黑이 등한히 한점, 그리고 白12때 黑이 손을 뺐것이라 든지, 약점을 남긴채 20으로 뛰어 나간 것등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그런중에서도 선수를 잡은 白이 44에 선착해서는 白의 우위였다. 더우기 黑이 초반 열세를 드러낸것은 白48때 49로 굴복한 때문이다. 여기서 는 나중에야 어찌되든 50으로 몰아 바꿔치는 것이 기백이였다.

그리고 중반에서 보여준 黑의 숨씨는 대단했다. 불리를 의식하고 79에 젓힌수라든지 87에 불인수등은 白에게 겁을 주기에 충분해서 이하 110까지 단숨에 추격 했으니 말이다.

중요한 시기에서 黑이 113으로 씌우고 111에 붙여 白을 굳혀준 것은 유감이었다. 그러나 白도 좌변에서 무리한 수를 두어서는 피장 파장이었는데 최후의 승부처에서 수순 착오를 일으킨 黑161이치명상이 되어 승부도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139...78의곳 이음, 169...128곳. 170 수이하 줄임. 白不計勝.

